

자궁경부 무력증의 치료로서 응급 자궁봉축술의 효과

이수민, 조윤성, 이 영, 김사진

Department of Obstetrics & Gynecology, Catholic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Objectives (목적)

자궁경부가 개대되어 진단되는 자궁경부 무력증의 치료로 응급 봉축술의 효용성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응급 봉축술이 임신기간의 연장과 출생아의 예후에 주는 효과를 알아보고자하였다.

Methods (연구 방법)

2007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자궁경부 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던 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궁경부무력증의 진단은 임신2삼분기에 진통 없이 자궁경부 개대가 되었을 때로 하였으며, 자궁경부 개대는 자궁경부 시진시에 양막이 개대된 경부로 보일 때 진단하였다. 31명의 대상 환자 중 9명은 응급 맥도날드 자궁경부 봉축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받았으며, 22명의 환자들은 침상안정과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Results (결과)

진단 시 자궁경부로 시진되는 양막의 돌출 크기는 2.89 cm, 2.91 cm으로 비슷하였으며, 진단 시 임신주수는 24주1일과 24주 6일로 차이가 없었다. 진단 후 분만까지의 임신 유지하였던 기간은 봉축술을 시행하였던 군은 45.78일, 시행하지 않았던 군은 9.32일로 p -value 0.019로 봉축술을 시행한 군에서 의미있게 길었다. 출생체중도 1,471 g과 912 g으로 봉축술을 시행한 군에서 더 높았다. 아프가 점수는 1분과 5분은 3.1, 2.82와 5.33, 4.18로 두 군간에 차이는 없었다.

Conclusions (결론)

자궁경부 무력증의 치료로 응급 자궁봉축술은 임신기간의 연장과 출생아의 출생체중을 늘리는데 기여한다.